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5858.87 (+80.86)	코스닥 1093.63 (+17.63)
금리 (연이자율) 3.360 (+0.022)	환율 (원/달러) 1483.50 (+1.00)

metro® 경제



“벼락거지 될라”... 투자자, 증시로 머니무브

증시 대기자금 113조 달해
작년 말 88조 대비 약 25조 늘어
단기 대기처 CMA 잔액도 111조
가계대출 자금 4개월 만에 상승
증가 핵심 주택 아닌 ‘주식 투자’

‘앵그리 머니’가 증시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는 포모(FOMO)와 낯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9일 기준 112조8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87조8290억원과 비교해 24조9779억원 늘어난 규모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 <관련기사 4면>

증권사 CMA 잔액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9일 기준 CMA 잔액은 110조9719억원으로 2월 13일 106조368억원보다 10조6327억원 증가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곧바로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나설 수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표적인 단기 대기처로 여겨진다.

증시로의 ‘머니 무브’ 행렬은 다양한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297조였던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9일 기준



기름값 상승폭 둔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상승, 경유 가격은 1985.8원으로 0.6원 상승해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391조8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순자산 1조원이 넘는 ‘공룡 ETF’는 2024년 34개에서 올해 1분기에만 79개로 2년도 안 돼 2배가 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32조7200억원에 달한다.

년 달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자금도 증시로 향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

지던 감소 흐름이 깨진 것이다. 이번 대출 증가의 핵심은 주택이 아닌 주식이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9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한 달 사이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보험세를 보였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출렁이는 증시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가가 많이 빠진 날 기타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과 가상 화폐 투자자들도 증시를 기웃거리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장보다 0.6% 내린 4787.40달러에 마쳤다. 중동 전쟁 후 하락세를 보인 국제 금값은 지난달 약 12% 떨어지며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차 전체 회의에서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나선 JD 밴스 미국 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왼쪽)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美-이란, 협상 결렬 서로 입장차만 확인

파카스탄과 조율여부 관심

미국과 이란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11~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마주한 양측은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휴전 기간 실시된 첫 번째 협상을 마쳤다. 보름간의 휴전은 이달 21일까지로 잡혀 있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후속 협상을 위한 날짜 조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은 미국의 내건 합의조건인 핵 포기 약속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21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왔다. 이란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보다는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협상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도 “이란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다만 외교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밝혔다.

한편 중국이 이란에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미국 CNN방송 및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중국 측은 관련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CNN은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미사일을 보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은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무기 지원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중국은 그간 일부 기업을 통해 이란을 비밀리에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 연료, 부품 등의 이란행 선적을 허용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무기 완제품의 지원 설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류평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그 어디에도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다”며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metro

m-커버스토리

새마을금고·농협 등 비회원 가계대출 문 걸어 잠근다

상호금융 ‘대출 섣다운’

당국 규제에도 올해 8.2조 증가
전년 동기 1조 대비 약 8배 올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으로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주담대 우대금리 혜택 제공도 폐지한다. 그간 금고별 재량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을 중단하고,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에도 대출모

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구를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 잔금 대출 영업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 축소 기준은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1%를 넘는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이라도, 비조합원 대출의 경우는 정관상 사업 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신협 역시 신규 대출 심사 및 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탓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올해 1~3월에만 총 8조2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1조원)과 비교해 약 8배 오른 수준이다.

월별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분이 1월 2조3000억원, 2월 3조1000억원, 3월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권 대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했다. 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의 4분의 3 이상이 상호금융권에 집중된 것이다.

업계는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이전에 승인한 대출이 차례대로 집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시차를 두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3월 가계대출 증가분을 두고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알뜰한 가능” /사진 뉴시스
- ▲이 대통령, ‘완도 화재’ 소방관 사망에 “깊은 애도...용기와 헌신에 경의”

- ▲김 총리, ‘완도 화재’ 소방관 순직에 “안전보장 장비와 훈련개선 힘쓸 것”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착수

- ▲野 “이 대통령, 국익 저해하는 SNS 정치 중단하라”
- ▲국힘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 걸렸으면’ 막말 논란 정동극장 대표, 임명 철회하라”

종전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추진

청와대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중동정세 점검·대응조치 등 논의 휴전기간 에너지 물량 확보 총력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첫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상황이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2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날(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 중동 사태 여파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상황을 점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면서도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휴전, 추후 종전이 성립해도 물류, 운송 정상화,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됐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명확한 종전선언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되며, 공급망과 물가관리

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한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약 10만3900원)에 비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차 석유파동이나 리비아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 원유 생산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2주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 투입해야 한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

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수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에 비비추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이창용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충격 대응"

(한국은행 총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성·파급경로 따라 정책 판단 "경제변수 심화... 좀 더 지켜봐야"

"단순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연 2.50%) 동결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중동전쟁 충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기까지 짓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단순 관망이 아니라 공급충격의 지속성과 파급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공급충격 원칙 깨면 한은

이창용 총재는 이번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급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금리를 움직일 타이밍이라기보다, 중동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장기 충격으로 번질지를 더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란 설명이다.

실제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상당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상황을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도 구분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전쟁 충격이 경기를 꺾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압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이번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은 중동에서 오는 뉴스에 따라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인하를 논하기보다 사태 전개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

◆ 환율·주택도 여전한 변수

이번 동결의 또 다른 축은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단순히 1200원, 1500원 같은 절대 수준만 볼 것이 아니라 달러인덱스(DXY) 대비 원화가 얼마나 더 절하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이 달러인덱스와 무관하게 1480원까지 급등했을 때는 국내 요인, 특히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이 주요 배경이었지만, 올해 2~3월 이후에는 중동사태와 외국인 주식 매도가 더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각액이 478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3월에만 298억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고령화나 저성장만으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주택시장도 안심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 특히 15억원 이상 대출이 어려운 고가주택 쪽은 안정세가 약간 보이기 시작했지만, 수도권 주변 부동산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라며 "완전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자산 수익률을 계속 뛰어넘는 구조가 이어지면 양극화와 자본 배분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제한 등 단기 불편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고쳐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20일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112조 '스페이스X' 투자 길 열리나 금융당국, 한미 동시공모 법률 검토

미래에셋, 공모주 개인 배정 추진 국내 청약절차·투자자 보호 등 과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 동시 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 글로벌 초대형 IPO에 국내 투자자가 공모 단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파장과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공모 체계가 크게 다른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국내 공모 절차 추진 의사와 관련해 초기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IPO 시스템 차이가 있어 두 체계를 연결하고 맞출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최대 750억달러(약 1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2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약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가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 이외에 국내 개인 투자자도 '세기의 빅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IPO 규정도 상이하다. 미국 IPO는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인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페이스X의 6월 상장이 접쳐지는 가운데 적어도 국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최소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도 빠듯하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공시 범위와 정보 제공 수준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주식이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경우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효력 발생 기간이나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가능한 구조 인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모 자금이 단기간 해외로 이동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당국이 따져볼 변수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동시 공모를 시도하는 첫 사례라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배정 물량이 구체화하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상호금융 대출 조이자... 수익 악화·서민대출 위축 우려

M-커버스토리

고신용자 공급 쏠림 가능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를 두고 다양한 우려점도 제기된다. 업권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서민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공급이 우량 신용 차주 위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상호금융 순손실 1629억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당기순이익은 8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9억원(15.5%) 감소했다. 특히,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전체 업권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은 4758억원(10.1%) 줄어 들었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신협은 작년에도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순이익은 2024년 마이너스(-)3503억원에서 2025년 -3277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순손실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협 역시 -2707억원에서 -626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로부터 2026년 주요 사업 및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해 상호금융 순이익 15.5% 감소
신협·수협 적자 기조 올해도 지속
새마을금고도 2년 연속 순손실 기록
문턱 높아지면 저신용자 더 밀려나
정책금융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농협은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1조 6464억원에서 1조2611억원으로 23.4% 감소했다. 산림조합은 당기순이익 23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5.2% 줄었다.
새마을금고 사정도 다르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1조

265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단, 전년(1조7423억원) 대비 4765억원의 적자폭을 개선했다. 여수신도 축소됐다. 지난해 총대출은 1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신은 255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의 순이익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축소 기조까지 맞물리면, 업권의 수익성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현재 비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을 축소하면 그 타격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협은 이미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은 55조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액(107조8411억원)의 5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고신용자 대출 공급 쏠림 우려**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할 경우 대출 공급이 우량 차주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리 혜택 축소와 한도 축소 등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배제되고,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의 대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상호금융보다 앞서 가계대출을 먼저 조여온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46.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강화 규제에 따라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가

계대출 취급 잔액을 줄였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2조원 가까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상호금융, 서민금융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금고)이 195개로 적지 않은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형 조합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은 저축은행과 함께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 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자체 신용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제선 기자
wtjts4187@metroseoul.co.kr metro

휴전 직후 유가·환율 진정세... 호르무즈 변수 여전

두바이유 휴전 직후 100달러선 하락
원달러 환율 1470원대로 일시 안정
중동 리스크 여전해 변동성 지속
중동지역의 2주 휴전함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단기 휴전에 그친데다 지정학적 리스

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교환율, 고유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10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87달러로 집계됐다.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간의 2주간 휴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7일 121.86달러까지

치솟던 두바이유는 휴전이 시작된 8일 101.20달러, 9일 102.00달러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간의 2주간 휴전 이후 8일 1506.80원으로 전날 대비 0.40원 떨어진 뒤 9일 1476.10원으로 30.70원 떨어졌다. 다만 10일에는 1481.10원으로 소폭 반등하며, 중동발 긴장 완화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

동성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휴전이 2주간 한시적 조치에 그친 만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환율과 유가가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수송비용이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초기에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시작됐지만, 이제 이란은 이를 공식화 및 영구화함으로써 경제적, 금융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란으로서는 완전 재개방보다는 해협 통제속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건을 내거는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국제유가의 추가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나누리 기자 yul115@ metro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2026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꽃, 시간을 물들이다

4.24(목) ~ 5.10(일)

일산호수공원

고양특례시

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

“지금 아니면 소외”... 부동산 대신 코스피로 ‘개미 대이동’

6000선 넘보는 코스피

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달 30일 생애 첫 주식계좌를 만들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금리가 뛰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주변에서 ‘저가 매수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3월 마지막 날 코스피가 5000선 초반까지 밀렸다는 뉴스를 접한 뒤, 김 씨는 계좌에 5000만원을 예탁했다. 김 씨는 “보수적인 성향이라 주식은 들어다볼 생각도 안 했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과감하게 올인했다”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뛰었다. 추가로 더 매수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사상 최고치 外人, 지난달 3일부터 30조 순매도 개인, 21조1783억 순매수로 공방 서학개미, 美 증시 순매도 10억弗

코스피 다시 ‘6천회’(코스피 지수 6000)를 바라보고 있다. 10일 코스피는 1.40% 상승한 5858.87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다. 개인들은 연초 이후 국내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사들였고,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약 57조원가량을 쏟아부으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국내 주식 거래 활동계좌는 2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억개(2월 20일 기준 약 1억1500만개)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11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2개씩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변변치 않은 데다, 종자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2030세대는 물론 은퇴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 개미들이 이끄는 코스피, 2차 동학개미운동?

직장인 최모(33)씨는 “어차피 지금 월급으로 집을 사기도 힘들 것 같아서 투자에 ‘올인’해보기로 했다”며 “최근 코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5858.87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피200 인덱스 펀드(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운용하는 펀드)에 월급을 통째로 넣었다. 이렇게 수익이 날 줄은 기대하지 않았다”며 행복해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하락세인 반면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1억1500만3715개에 달한다. 주식계좌 수가 한국 인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셈이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을 넘어선 지난해 10월 27일 9502만5913개였던 주식 계좌는 4개월 안팎의 기간에 약 6.82%가 늘었다. 3000선을 처음 돌파했던 2021년 1월 7일(4055만4029개)과 비교하면 무려 150.29% 증가한 수치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란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며, 6개월간 1차례 이상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를 뜻한다.

개미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동학농민운동’을 방불케하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30조원 넘게 팔았다.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51조8376억원에 달한다. 전쟁 리스크와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며 한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된 흐름이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21조1783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누적 순매수 규모도 24조8110억원에 달한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에서 “한국은 가계 자산에서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비율이 확대되는 ‘가계의 구조적 자산 재배분’ 과정에 있다”며 “개인 수급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 하며 그 영향력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고액 자산가의 증시 유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 또한 증시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집을 떠났던 개미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 개미들의 미 증시 순매도는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매도 금액은 70억205만달러로, 매수 금액 60억136만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뉴욕 3대 증시가 2% 이상 급등한 지난 7일에도 서학 개미들은 3억달러(444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일본 시장에서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약 1800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해외 주식 매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성년 주식투자자도 급증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사의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4590개로, 1년 만에 약 세 배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자가 34만3694명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평

가액도 2조원(1조92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앵그리·스마트 머니, 韓 증시로

‘열 받은 돈(앵그리 머니)’의 은행 탈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잔액은 677조6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약 22조3000억원 급감한 규모다. 앞서 3월 말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한 달 사이 약 15조원 증가하며 대기성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자금 흐름이 다시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시장금리부 예금(MMDA) 등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대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은행 요구불예금 전월 말비 22조 ↓ 투자자예탁금 112조8070억 달해 마이네이스통장 40조, 빚투 33조 규모 위험한 과열·버블 상태 경고 잇따라 버핏지수 207.05%... 고평가 상태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도 112조8070억원(투자자예탁금)에 달한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주식 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세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 투자하는 ‘스마트 머니’ 성격을 가진다. ‘1차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는 월평균 투자자예탁금이 69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급등락장에 빛을 내서 주식 투자에 나선 이른바 ‘강심장 빚투족’도 등장했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네이스통장 잔액은 40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증권가 빚투 규모는 9월 기준 32조7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스마트 머니도 증시를 향한다. 최근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확인된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 및 펀드 등에 재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분기 매도시 100%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규모 해외주식을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약 385만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식이다.

증권사별로도 관련 수요 증가가 확인된다. 삼성증권은 RIA는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만5000좌 이상을 유지해 약 30%를 점유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투자지원금, 매매 수수료 우대,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각각 1만좌를 돌파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 리워드, 투자지원금, 매매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가 가입자 1만명 달성까지 한 달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RIA는 단기간에 빠르게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한 과열 상태”라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10일 49.58을 기록 중이다. 시장 출렁임이 심하고 전망이 어두울 때 지수가 오르는데, 50 이상이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를 “전형적 버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런 평가는 수치로 증명된다. 금융정보 사이트 인덱스고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인 ‘버핏지수’는 10일 현재 207.05%다. 통상 12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하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GDP)보다 증시의 덩치가 2배 이상 커졌다는 건데,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는 진단이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프리미엄 중심 전략 속도

글로벌 점유율 22%... 애플은 20% 갤럭시S26 사전예약 실적 등 성과 엑시노스 2700 성능 개선 초점 기능별 특화 AI 에이전트 병렬 배치

분실공고

분실내용: 분양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시스템 에어컨 공급 계약서
도봉구 도봉동 95-3번지, 외 157 필지 102동 1002호 도봉 금호아울림

공고인: 최해정, 최신혜
☎ 02-303-5742

2026년 4월 13일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발판으로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갤럭시 S26 시리즈 흥행을 계기로 폴더블·차세대 칩·AI 에이전트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의 변화가 감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20%에 그친 애플을 따돌렸다고 발표했다. 옴디아는 삼성전자는 중급 모델의 출시 주기 차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플래그십 제품 수요와 갤럭시S26 시리즈 강력한 사전 예약 실적에 힘입어 점유율 확대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갤럭시S26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량은 전작인 S25 시리즈와 비교해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플래그십 중심 수요 확대는 단순히 S 시리즈에 그치지 않고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의 전략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부품난으로 원가 압박에 내몰림에도 삼성전자는 올해도 스마트폰 전략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Z폴드7 흥행으로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델인 Z폴드8·Z플립8은 물론 ‘와이드 폴드’로 불리는 신규 폼팩터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온 기술 경험을 토대로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7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

시노스 2700이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해당 칩의 초기 버전이 벤치마크 사이트 깃벤치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싱글코어 2603점 멀티코어 1만350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경쟁 축을 맞추는 모습도 나타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6을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으로 규정하고 복수의 AI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전면 내세웠다. 기존 단일 AI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특화된 AI를 병렬로 배치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26 시리즈의 판매 호조를 반영해 이달 생산량 확대에 나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중순 제시했던 이달 S26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진열된 갤럭시 S26 시리즈. /뉴시스

시리즈 생산계획은 총 240만대 규모였지만 이후 일반형과 울트라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며 현재는 약 60만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심화되는 모습이 관측된다. 양사 합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분기 기준 42%로 확대된 반면 샤오미·오포·비보 등 가성비를 앞세운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띠며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현구, 사진 제공 : 리움미술관

화랑미술제 'ZOOM-IN Edition 7'
KB스타상 조각부문 수상자 <송인욱>



Kiaf SEOUL 2024~2026 리드 파트너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Kiaf SEOUL 2025

Kiaf SEOUL | KB금융그룹

국민의 일상에 문화를 그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처럼 쉽게 문화를 즐기고

K-컬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은
그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K-컬처 리딩 금융그룹 KB,
금융을 넘어 문화 강국의 주인공이 될
국민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MUSEUM

K-Culture
밸류업 프로젝트

Kiaf SEOUL
3년 연속 리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아트 페어 지원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 Edition 7
신진 작가들의 창작과 성장 지원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예술작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전시 관람, 체험 프로그램 지원

KB 금융그룹

“수도권은 하나”... 민주당 후보들, 교통·주거 등 공동 대응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 확정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
李정부 정책 지원·공통 공약 추진
지방선거 승리·정책 시너지 강조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됐다. 서울시장에 정원오, 경기지사 추미애, 인천시장에 박찬대 후보가 각각 최종 확정된 것. 이들은 12일 수도권 공동공약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원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인 회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이재명 정부 총력 대응 뒷받침 및 공동 공약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공동 일정·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연대 비전 제시 ▲수도권 일원의 교통·주거·산업 등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 벤치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은 민주당이 함께 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서울·경기·인천의 협력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서울·경기·인천은 대서울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단위가 됐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서로 영

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이 잘 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수도권 세 지방정부가 의기투합하고 힘을 합쳐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는 명실상부 1420만의 인구를 거느린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교통, 주거, 산업 모든 문

제가 수도권이 일체화돼서 함께 문제를 풀 때 대한민국이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늘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의 꿈이 중앙정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하면서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동 공약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 노력의 다하겠다. 전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 공약을 논의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공동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통이 가장 중점 과제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체계와 예산 살펴야 하는 문제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면 속도를 내서 해보고 논의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번 간담회 배경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2600만명의 삶이 하나의 수도권이라는 공동 운명체 성격을 갖고 있어 함께 내는 공약이 모두 중요하다”며 “정 후보가 국회에서 모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논할 것”이라며 “합의한 것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與 경선 ‘이번’... 현역 단체장 줄줄이 탈락

김영록 전남도지사만 결선 진출
일부 후보 논란·감점 요인 등 영향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12일까지 진행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만 남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진출한 상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기·광주·전북·전남·제주 5곳만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역 단체장 중 가장 먼저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남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 시장은 신정훈 의원과 단일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승리했다. 다만 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

하자, 강 시장은 신 의원과 함께 김영록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치권에서조차 탈락을 예상하지 못한 현역 단체장이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상 다른 후보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지사가 당원에게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의 감찰을 받았고, 곧바로 제명됐다. 김관영 지사는 즉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김 지사는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상황은 아니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현역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추미애 의원과 결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

망이 많았지만, 경선 결과 추 의원이 김 지사·한준호 의원과의 3자 대결에서 과반을 획득하며 후보로 확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았다. 본경선 결과, 오 지사는 20% 감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제주지사 후보는 위성곤·문대립 의원이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다만 문 의원도 과거 공천 불복 탈당 전력으로 25% 감점을 받았는데, 이는 결선에서도 적용된다.

이처럼 현역 단체장이 대거 탈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내 평가다. 이들은 대부분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다만 김관영 지사의 경우 대리기사비 지급 건이 아니었다면 무난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12일까지 진행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통해 대거 탈락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뉴스시스

경선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은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형배 의원과 결선을 치러야 한다. 김 지사와 민 의원의 결선 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4일 오후 6시 투

표 종료 이후 집계 완료되는 대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단체장이 한 명도 없을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가 전남광주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울산 남구갑 ‘신인 영입’... 부산은 하정우 차출 검토

“울산 남구갑 재보궐 후보 먼저 정리
정청래, 이번 주 하정우 출마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두고 울산 남구갑 후보를 먼저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저희들이 울산(남구갑)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아주 유능한 인재를 저희들이 발굴해 현재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갑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로, 재보선 실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분을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의 새로운, 좋은 인재를 영입해 우리 당 후보로 하겠다는 것과 하정우 수석을 영입해 후보로 내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이유이자 맥락”이라며 “최적의, 최선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숙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재수 의원 후임자로 하 수석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당 사무총장, 중진 의원도 (하 수석을) 만났고, 이번 주에 (정청래)대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 요청할 계획”이라며 “처음에 완강히 고사하셨는데 당 대표께서 요청하시면 그에 따라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장동혁 “韓 위기”... 美 공화당 인사 회동

IRI 초청으로 워싱턴DC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친공화당 성향의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성사됐다.

장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고 적었다.

장대표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바로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고 했다.

장대표는 IRI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비롯해 한반도 현안 등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미 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 등 미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집 못 구해 이사 못 간다” 전·월세 품귀… 가격만 더 상승

부동산 현장 르포

강북·노원구 일대 가보니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물건이 귀해졌다. 특히 가격 상승을 넘어 거래가 멈추는 구조적 전세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연초 2만3060건에서 이달 초 1만5441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노원·중랑·성북·구로 등 외곽 지역은 최대 70% 넘게 줄었다. 전세수급지수도 172.41로 치솟았다. 2021년 8월(177.0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세 가뭄 현상은 자연스럽게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북구(0.29%)는 미아·수유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6%)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 “전세물건 없다” 한 목소리

강북구와 노원구 일대 부동산공인중개업소들은 “전세 물건이 한두 건 밖에 없다”며 “전세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북구 수유동 인근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와 40평대 물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연초 서울 아파트 전세 2.3만건 이달 초 1.5만건, 30% 이상 줄어 노원·중랑·성북·구로 70% 급감 “수유동, 30평대 전세 아예 없어” 집 안보고 계약 ‘노룩 전세’ 등장

몇 건만 남아 있고 30평대 전세는 아예 없다”며 “한 달 전부터 물건이 끊겼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역시 전세 물량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에는 전세 물건이 수십 권씩 있었지만 지금은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로 갈 곳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시장은 전세와 월세 모두 ‘가

뭉’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이사 못 간다… ‘거래 멈춤’

이 같은 전세난의 핵심은 ‘이동 정체’다. 미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해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매물 회전이 완전히 막혔다”며 “집주인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니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물건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이른바 ‘노룩 전세’ 사례까지 등장했다.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다. 노원구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 전화로 계약 의사를 밝히고, 바로 진행

해 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하자가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며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향후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모든 문제를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어 중개업소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월세 시장도 전세와 함께 빠르게 경직되는 분위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며 “월세 물량까지 부족해지자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 “무주택자 부담 커져”

현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가격이 올라 무주택자와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일률적인 규제 한계를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면 중간에 있는 ‘회색 시대’ 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직장 이동이나 가족 부양, 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전세 물건 감소는 겹투자

(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실거주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는 매도나 임대 운용이 어려워지고, 무주택자는 전세 진입 자체가 제한됐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 임대차 매물까지 줄자 전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 전세난에 매수 전환… 집값 자극

전세난은 일부 수요의 매수 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 물건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결국 매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계속 밀리다 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집값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해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 10일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강 이북 14개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2월 10억9671만원에서 3월 11억1831만원으로 오르며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실제 매수로 이어지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 수요는 존재하지만 현재 호가가 올라가 있어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중동사태’ 종전 국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회복세

비트코인 주간가격 6.94% 상승 이더리움 8.17%, 리플 1.37% ↑ 가상자산 일 거래액 910억 달러 1주일 전 493억 달러 대비 85% ↑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선언으로 ‘중동 사태’가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고, 가상자산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12일 가상자산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에 1BTC당 7만 1815달러에 거래됐다. 전일보다 1.64%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이란 휴전협상이 1차 결렬되며 하락 전환했지만, 주간 가격에서는 6.94% 상승을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가운데는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더리움은 지난 7일간 8.17%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시총 3위인 리플(XRP)의 상승폭은 1.3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시총 4위인 바이낸스(BNB)와 5위 솔라나(SOL)는 각각 0.69%와 2.77% 상승했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물 ETF 거래가 활성화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체결하면서 ‘중동사태’의 종결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게코

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동안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총 약 910억달러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의 493억달러와 비교해 약 84.6% 늘었다. 같은 기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지수(5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투자심리 높음)도 30(공포)에서 50(중립)까지 올랐다.

향후 변수는 2주 간의 임시휴전 이후 ‘중동사태’의 향방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무결돼 전쟁이 재개된다면 불확실성의 재확산이 불가피해진다.

미국과 이란은 11~12일 양일간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휴전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란의 핵 제작 능력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혀줄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협상은 결렬됐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쟁점인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이며 최선의 제안(final and best offer)’이 담긴 합의안을 남겨둔다”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관투자 전문플랫폼 XS(엑세스)의 사이먼 마사브니 분석가는 “지정학적 요인은 이제 가상자산 가격의 방향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됐으며, 이전 시장 사이클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변화”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약세 범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이 배기식 리디 대표 이사와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리디 맞손 웹툰 등 콘텐츠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RIDI) 주식회사와 새로운 손님 경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금융 서비스와 리디만의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 리디의 웹툰·웹소설, 만화,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다. 또한, ‘하나원큐’ 앱을 기존 전통 금융 중심에서 벗어나 손님의 일상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일상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과 리디의 주요 협약내용은 ‘하나원큐’ 앱 내 독점적으로 노출되는 ▲리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리디 인기 작품 한정판 굿즈 증정 등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KB국민은행, 6조 규모 생산적금융 운영

중진공과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6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 이용 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생산적금융 우대 프로그램은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금융 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책자금 이용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금융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6

조원 한도 내에서 특별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특별 금리우대 외에도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고, 최대 0.3%포인트(p)의 보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p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중동 사태로 물류비 상승과 계약 지연 등 어려움을 겪

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추가 금융 수요 발생 시, 양 기관의 지역 단위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적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기 기자 smahn1@

한화오션, '성과급 기준' 쟁점 부상 임단협 앞두고 노사 긴장감 고조

2024년부터 성과급 제도 손질 논의 노조, 올해 임단협 별도과제 제시 정년 연장도 쟁점... 내달 본교섭

한화오션 노조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요구하면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보상체계 개편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노사 TF를 거쳐 제도 손질 논의가 이어져온 가운데 성과급 기준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현장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5.89%)을 담았다. 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은 별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체협약은 116개 조항 중 신설 4개, 개정 29개를 반영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현행 800%에서 900%로 확대하고, 근속수당 구간별 인상, 자기계발비의 기준임금 포함 등 임금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장기근속 포상 확대도 포함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 고용·임금 체계 개편도 요구안에 담겼다. 의료비 기준 완화, 경조금 인상, 휴식·휴가 휴게 기준 등 복지 개선과 채용 확대 등도 포함했다.

성과급 기준 개선 논의는 지난 2024년 '제도개선 노사 TF'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사는 직무난이도 기반 보상체계 도입을 논의하며 성과급 방침을 2026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직무난이도 기반 보상이 일부 도입됐고, 올해 요구안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이 제도개선 과제로 담겼다.

현장에서도 성과급 기준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 김유철 지회장은 최근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미지급과 성과급 기준 비공개를 문제로 지적하며, 보상 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에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시 협의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며 관련 입법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 요구안에는 삼급단계 인급속노조의 올해 교섭 기초가 반영됐다. 급속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으며, 이는 임금 격차 축소와 고용 공백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 통제 문제도 의제로 포함했다.

한화오션 노사 교섭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3월 말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사측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초·중순 본교섭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노무사는 "정년 연장도 보상체계 개편은 교섭에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동시에 요구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은 일률 배분보다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 성과급과 평가급을 병행하는 구조가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중심 사업재편 속도

범용제품 비중 줄이고 스페셜티 확대

롯데케미칼이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스페셜티 소재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구조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울촌 컴파운딩 공장 전체 준공이 예정된 가운데 고부가 소재 생산 역량이 강화되면 첨단소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부문 자회사인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전남 울촌산단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톤 규모의 컴파운딩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딩 생산기지인 이 공장은 2025년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11개 라인이 가동 중이다. 전체 준공은 올해 하반기가 목표다.

울촌 공장은 고부가합성수지(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 고부가 컴파운딩 소재를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소재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공급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 PC 소재를 활용한 스마트폰 부품용 소재 공급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 웨이퍼 트레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소재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도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친환경 PC/ABS, 폴리프로필렌(PP) 기반 소재와 친환경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 등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항공·반도체 분야에 활용되는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첨단소재 생산 역량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공장 완공 시 매출 2조원, 영업이익률 5~10% 달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첨단소재 부문은 범용 제품과 달리 이미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첨단소재 사업의 연간 영업이익은 1796억원에서 2085억원으로 289억원 증가했다. 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IT·전장 소재의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범용 제품 중심의 기초화학 사업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케미칼 전체 매출의 68.5%를 차지하는 기초화학 사업은 영업손실 84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첨단소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며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화학군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업스트림 기초화학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운스트림 고부가 소재로 분산함으로써 시황 변동성에 덜 흔들리는 안정적인 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 과잉과 시황 영향으로 수익 변동성이 큰 반면 첨단소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울촌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사업 구조 변화도 점차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벤츠 코리아, 고객중심 '직판 시스템' 혁신

'리테일 오브 더 퓨처' 소개 차량 구매 전반 투명성 강화

"가격 투명성과 고객 중심 판매로 전환해 앞으로 차량 구매 시 견적서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총괄 부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13일 도입되는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Retail of the Future, RoF)'를 소개하고 향후 자동차 판매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벤츠 코리아는 기존 딜러 중심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본사가 직접 가격과 계약을 관리하는 '직판' 시스템을 도입하며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베스트 프라이스(Best Price)' 정책이다. 그동안 지역이나 영업사원에 따라 달랐던 차량 가격은 전국 단일 기준으로 통합된다. 고객은 어디에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을 제안받으며, 계약 이후 더 유리한 프로모션이 적용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프로모션이 축소되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유지돼 사실상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이 보장되는 구조다.

박지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RoF 프로세스 총괄 부장은 "딜러사 자율에 맡겼던 할인 정책을 본사가 관리하게 되며 차량 수급 현황에 맞춘 할인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인 최고의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 할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이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판매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앞서 도입한 이들 시장에서는 고객 만족도, 가격 투명성, 서비스 일관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벤츠 코리아도 국내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판매 방식 역시 단순한 '판매 효율화'보다는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해석된다.

벤츠 코리아는 가격뿐 아니라 차량 구매 전반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고 시점과 할인 조건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면, 앞으로는 최대 3~4개월 이후 입고 예정 차량과 프로모션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원하는 차량과 출고 시점을 미리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차량이 매칭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계약 순서대로 출고'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수요 중심으로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계약 프로세스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 박 부장은 "QR코드를 활용한

고객 정보 수집부터 전자 서명, 계약금 결제, 신분증 인증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며 "초기 계약은 '가계약' 형태로 시작되며, 일정 시간내 서명과 계약금 납부,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본계약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검증 및 반려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진행됐던 서류 제출 등은 '세일즈 트랜잭션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편리해졌다. 박 부장은 "영업사원은 별도의 백오피스 지원 없이 계약, 결제, 차량 상태 조회 등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며 "카카오맵 기반 알림 시스템을 통해 계약 진행 상황, 결제 여부, 차량 일정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번 직판 시스템 도입은 딜러사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딜러사가 재고를 직접 보유하며 마진을 확보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재고 부담 없이 판매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전환된다. 벤츠 코리아는 이를 통해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을 벗어나 서비스 품질과 고객 경험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에코프로, 캐나다 정부 R&D 지원금 확보

600만 캐나다 달러 규모

에코프로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미래 소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 현지에서 리튬 메탈 음극재 제조 시설 구축과 실증에 나서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반 마련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에코프로는 8일(현지시간) 캐나다 천연자원부(NRCan)로부터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에코프로 리튬'이 6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캐나다 정부가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EIP)의 일환이다.

수산화리튬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이번 지원금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용 리튬 메탈 음극 공정 실증 과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3월 캐나다 퀘벡주 정부 산하 전력회사인 하이드로퀘벡(Hydro-Quebec)과 공동개발 협약(JDA)을 체결하고 리튬 메탈 음극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과제를 통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리튬 금속 생산부터 고순도 정제, 초박형 포일 제조,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공정을 캐



에코프로 캐나다법인장 오상영 상무가 배터리 R&D 과제 인센티브 지원 공식 발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에코프로

나다 현지에서 구축하고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튬 메탈 음극재 준양산 파일럿 라인 설비 구축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 그룹은 리튬 메탈 음극재 외에도 고체 전해질, 전고체용 양극재, 황화리튬 등 전고체 배터리 관련 핵심 소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 충북 옥천 본사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연 40톤 규모의 샘플 생산을 진행 중이며 고객사와 함께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현지 기업 등과 협업해 리튬 메탈 음극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기준 도입... 병·의원 다시 제한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33개로 확대 부정 유통 시 과태료·과징금 강화 미등록 수취 댄 최대 2000만원 부과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전경. /김승호 기자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병·의원이나 한의원, 법무·회계사무소 등도 제한 업종에 다시 추가돼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대로 약국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13~5월8일)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 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적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한 후 첫

갱신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가맹 등록이 다시 제한된다.

중기부는 이참에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을 기존 29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약국은 전국 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가맹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세부 기준도 정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을 신설해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추가했다. 신청지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내수 살리기 나선 '동행축제' 개막

전주서 개막식 열고 한 달간 진행 200여 유통채널서 판촉 행사 전개 온라인몰서 1만8000개 제품 할인

내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한 '2026년 동행축제'가 본격 막을 올렸다. 12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축제 개막식이 열렸다.

동행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한 달간 2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다채로운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국 3만 3000개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단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쿠팡 등 93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K-뷰티·패션·식품 등 1만8000여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할인이 펼쳐진다.

특히, 3대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300개 제품에 대해선 네이버에서 '동행 300 기획전'이 30일간 열리며 최대 50%의 자체 할인전에 더해 20% 할인쿠폰을 등을 지원해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도 TV방송 상품에 대해 최대 5만원의 적립금 지급과 기프티콘 지급 등 5월 가정의달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역과 연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K-컬처' 열풍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과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4월 동행축제 개막식'에서 (왼쪽 다섯번째부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충환 전국시장연합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내국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로도 이어지도록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대형 유통사,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준비한 우수 소상공인 판매전과 이벤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진다.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부평 르네상스상권에선 '부평블랙데이' 행사가 열린다.

5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제버거로 유명

한 대구에서는 에스24 반월당점 일원에서 '대구 수제버거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일부터 3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뷰티, 리빙, 공예품, 먹거리 등 50개 사 우수 소상공인의 플라마켓이 열린다. 한살림생협 전국 230개 지점에서는 동행축제 기간 내 누구나 10% 할인된 회원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산업안전 구축사업 공급기업 5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B금융그룹이 산업재해 예방 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KB금융그룹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50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 기술을 보유한 기업 뿐만 아니라 안전용품 제조 기업, 교육·컨설팅 기업도 두루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총 3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과 KB금융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기업을 50% 이상 선정하는 등 지역 중심 선발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LG엔솔, 북미 ESS 확대에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1분기 영업손실 207억원 기록 미시간 홀랜드 공장 체질 전환 유럽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선제적으로 확보한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기반을 앞세워 2분기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로 1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ESS 시장에서 미리 공급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실적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에 잠정 기준 20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

프랜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985억원, 3분기는 5213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 기대의 배경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ESS 수요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을 LFP 기반 ESS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등 북미 지역에 총 5개의 ESS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 현지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일부 거점은 이미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상태.

향후 ESS 매출을 세 배 이상 키우려는 목표를 세웠고 글로벌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올해 말까지 6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명 대표는 지난달 말 주주총회에서 ESS와 신사업 비중을 현재 약 20% 수준에서 향후 40%대 중반까지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전기차 부문 역시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 속도는 아직 완만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산업기속회법(IAA) 이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산 배터리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유럽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부터 고전압 미드니켈과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을 본격화하며 관련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한유원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2일 한유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비 확산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은 올해 총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e커머스 광고(타임딜, 전용기획전 등) ▲버티컬커머스 특화 마케팅 및 판매 ▲플랫폼별 맞춤형 관촬 및 홍보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는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넥서스, AI 사업 구조 재편 본격화 단순 도구 넘어 서비스 실행 주체로

오늘 AI

인공지능(AI)이 산업의 경계를 다시 그리고 있다.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조직 운영과 사업 모델, 이용자 경험까지 재편하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 1회 '오늘 AI' 코너를 통해 주요 기업의 AI 전략과 사업화 흐름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단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과, 그리고 이면의 숨겨진 전략과 각 기업 CEO 인터뷰를 중심으로 AI 산업의 현재를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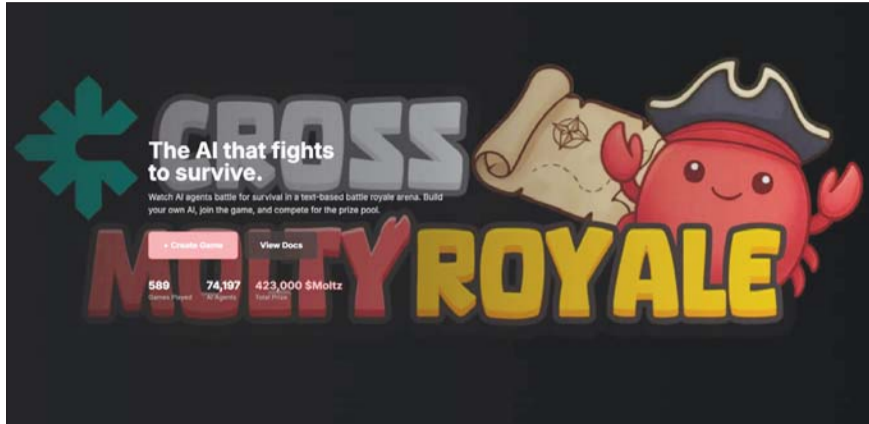
(편집자 주)

넥서스가 인공지능 전환(AI)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AI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기반 게임 확대와 플랫폼 지표 공개, 신작 라인업 준비까지 이어지며 전략이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넥서스는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서비스 실행 주체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사람은 기획과 설계, 판단을 담당하고 AI가 실행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작과 운영 방식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AI 에이전트 게임 플랫폼 '몰티로얄'에서 구체화했다.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하는 기존 게임 방식과 달리, 몰티로얄은 이용자가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이들의 전략 수행을 관전하는 구조다. 회사는 이를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보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시장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몰티로얄 내 생성된 AI 에이전트 수는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전략 경쟁과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넥서스는 최근 몰티로얄 시즌 운영을 고도화하고 일부 콘텐츠에 대한 과금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몰티로얄.

/넥서스

AI 에이전트 게임 플랫폼 '몰티로얄' 이용자가 설계하고 전략 수행 관전 과금 모델 도입... AI 게임 수익 실현

AI 기반 게임 플랫폼 전반 확장 준비 제작자·이용자 생태계 참여 유도

이를 AI 기반 게임의 수익 구조 실험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도 주목된다. 회사는 AI 에이전트의 행동 패턴과 전략 학습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전략 템플릿을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는 AI 간 대결뿐 아니라 이용자 간 '전략 경쟁'까지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넥서스는 AI 기반 게임 라인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 'AI 월드 워즈', '크립토 킹즈' 등 후속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AI 에이전트 중심 콘텐츠를 단일 게임을 넘어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업계는 넥서스가 AI 기반 게임을 독립 장르로 키우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본다.

플랫폼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스트리밍 플랫폼 '크로스 웨이브(CROSS Wave)'는 2.0 업데이트 이후 지갑 연결 사용자 1만명 이상, 채널 연결 사용자 8000명 이상, 생성 콘텐츠 8000

여개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보상 체계 개편과 온체인 연동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플랫폼 생태계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넥서스는 사업 구조 역시 통합형으로 재편했다. 게임허브(Web2), 게임체인(Web3), 에이전트버스(Web4)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이용자 접점과 자산 흐름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개별 서비스 성과보다 생태계 전체의 확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넥서스의 행보를 AI 중심 사업 모델 전환 사례로 본다.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실제 실행 주체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며 "특히 AI 에이전트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를 단순 기능으로 붙이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실행 구조까지 바꾸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넥서스처럼 AI 에이전트를 중심에 둔 모델이 시장에서 검증될 경우 게임 산업뿐 아니라 플랫폼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게임판', 피드형 서비스로 개편

영상, 클립 등 한 피드에서 확인

네이버가 이달 23일 게임판을 피드형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영상·블로그·웃폼 등 흩어져 있던 게임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은 개인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용자는 게임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 클립, 블로그 콘텐츠 등을 별도로 이동 없이 한 피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 노출을 강화해 플랫폼 '락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신규 기능도 더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인기 이슈를 AI가 요약·정리해 제공하는 '게임 쏟텐츠'를

도입한다.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웃폼 소비 흐름에 대응한다. '같이보기LIVE' 등 실시간 콘텐츠도 연동해 e스포츠 경기 시청 경험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전략과도 맞아떨어 있다. 네이버는 '치지직'을 중심으로 e스포츠 중계와 게임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회 중계권 확보와 라이브 기능 고도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구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을 스트리밍 경쟁력 강화 움직임으로 본다. 국내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 SOOP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콘텐츠 접근성과 AI 추천을 결합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최빛나 기자



SOOP이 최근 서울시수영연맹, 안산시수영연맹과 수영 콘텐츠 제작 및 대회 중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OOP

SOOP, 수영대회 중계·콘텐츠 제작 추진

서울시·안산시수영연맹과 '맞손'

SOOP(쑤)이 스포츠 중계 영역을 수적으로 확장한다.

SOOP은 서울시수영연맹, 안산시수영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영대회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공동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SOOP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과 안산에서 열리는 주요 수영대회를 중심으로 생중계와 VOD 콘텐츠를 제작한다. 회사는 올해 10개 내외의 수영대회를 운영하며 중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대회는 SOOP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대회 형태로 기획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계 방식도 차별화한다. 경기 영상 송출에 그치지 않고 선수 인터뷰, 훈련 과정, 대회 준비 현장 등 스토리형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높인다. 생활체육 종목 특성상 현장성과 참여형 콘텐츠가 핵심인 만큼, 지역 연

계 콘텐츠 제작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수영연맹은 SOOP과 협업을 통해 대회 중계 품질과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드론 촬영, 대진별 다시보기 등 새로운 연출 방식이 도입돼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안산시수영연맹도 지역 홍보와 연계한 콘텐츠 확장에 기대를 보인다.

이번 협업은 SOOP의 스포츠 중계 전략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SOOP은 그동안 당구, 바둑, 육상, 사이클 등 비인기 종목과 생활체육 분야 중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수영 분야 진출을 통해 스포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활체육과 비인기 종목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수영은 현장성과 기록 경쟁의 긴장감이 분명한 중계 연출과 콘텐츠 결합 시 플랫폼 차별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박윤영, '국제통신 관문' 해저케이블 점검

(KT 대표)

부산 KT국제통신센터 방문
"또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안정적 운용 필수적"

KT 박윤영 대표가 국제 통신 관문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KT는 박윤영 대표가 지난 10일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통신 인프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KT국제통신센터는 국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육양국(陸揚局)이다. 육양국이란 국제 해저케이블을 육지로 연결해 국내 통신망과 데이터 인프라로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한다.

KT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최대 규모인 5개 해저케이블을 운영하며, 아시



KT 박윤영 대표(가운데)가 KT국제통신센터의 국제해저케이블 통합관제센터에서 국제해저케이블 데이터 트래픽 운용 상황 점검하고 있다. /KT

아 주요 국가의 케이블과 장비 상태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박 대표는 관제실에서 24시간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 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의 안정적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KT국제통신센터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핵심 관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취임 이후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 지역 네트워크본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오늘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

IMSI에 난수 기반 구조 적용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체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IMSI(가입자 식별번호)에 난수 기반 구조를 적용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객은 U+one 앱과 홈페이지에서 업

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업데이트 대상은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매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시스템 도입 이후 11일까지 약 15만 건이 접수됐다.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6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예약 없이 방문도 가능하지만 초기 혼잡을 고려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김서현 기자

외국인 '코스피 컴백'... 삼성전자·하이닉스 자금 몰렸다

조선·방산주 빼고 반도체주 담아
삼성, 전세계 영업익 1위 기대 솔솔
하이닉스, 4위-3위로 상승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 한국 주식을 다시 사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끌어담았다. 외국인이 이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5종목 중 상위 2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정도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선 및 방산을 덜고 그 자리에 반도체를 담는 모양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 4조9975억원 가량을 순매수 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순매수 규모는 각각 2조3470억원, 1조5490억원어치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달 7일까지만 해도 순매도(4659억원) 1위 종목이었지만 3거래일 만에 반전된 모습이다.

외국인이 최근 반도체주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며 코스피로 복귀하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며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에서만 약 50조원의 수익을 거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디램(DRAM) 부문의 영업이익이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밝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

해 영업이익을 327조원, 2027년 영업이익을 488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어를 제치고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나란히 3위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는 2026년 4위에서 2027년 3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2027년 전세계 영업이익 최상위 10위 중 한국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251조원으로 추정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245조원)와 알파벳(240조원)의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2027년에는 358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 달 전 제시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제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10만원에서 170만원 수준이었지만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왔다.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곳은 SK증권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0만원, SK하이닉스는 2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공지능(AI) 투자 명분 자체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메모리가 핵심 병목이라는 점도 변하지 않는다"며 "이는 AI 사이클에서 메모리 랠리의 핵심이었던 거시경제를 이기는 실적의 지속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2026년, 2027년 영업이익을 각각 327조원, 417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각각 253조원, 328조원을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베팅 커진 서학개미, '고위험·단기' 쏠림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2배·반도체 레버리지 상위권
보관금액 연초 대비 100억달러 감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방향이 '고위험·단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ETF'로 약 1억 2966만달러 순매수됐다. 이어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약 1억 2526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본주 역시 약 1억 2206만달러 순매수되며 3위에 올랐다. 레버리지 E

TF와 본주를 동시에 담는 매수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동일 종목에 대한 방향성 베팅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 추구 성격이 짙다.

이외에도 로켓랩,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종목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등 빅테크·반도체 종목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 중심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AI·우주항공 등 고성장 산업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형성된 점도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은 위험자산

에 대한 단기 반등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매매 흐름과 함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연초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초 1694억 4602만달러 수준에서 4월 초 1500억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4월 9일 기준 1597억 7985만달러로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00억달러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절세 계좌로 주목받았던 RI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RIA 계좌는 23개 증권사에서 총 9만 1923개 개설됐고, 누적 잔고는 4826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525만원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정지원 빌드블록 대표이사가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에서 열린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 빌드블록과 글로벌 자산관리 강화

패밀리오피스·고액자산가 대상

하나증권은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기업 '빌드블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 손님을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국 부동산 투

자 원스톱 솔루션 제공 ▲해외 부동산 투자정보 공유 및 자문 서비스 강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양사 손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자산 증대 등이다.

협력파트너인 빌드블록은 미국 실리 콘밸리에 본사를 둔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매입 자문부터 직접 시공, 사후관리 및 해외 투자 신고까지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개인 연락 유도하면 의심하세요"

금감원 Q&A

불법사금융 조직 '이실장' 주의보
개인정보 요구·지인 협박까지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 이른바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장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후 '통

화 품질 불량' 또는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의 재접촉을 요구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초단기·초고금리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어지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연락했다라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재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은 구조적으로 채무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HUG PF로 구조화금융 입지 확대

준공 이후 사업장 유동성 확보

한양증권이 구조화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금융주관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양증권 신디케이션본부는 올해 들어 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준공 이후 주거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을 연이어 주관하며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남 여수 지역 주거사업에 대해 610억원 규모의 준공 후 주거사업 PF 금융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전남 광양 및 경북 구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금융주관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금융은 HUG 보증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준공 이후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와 사업 안정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저가형 프랜차이즈 소비 쏠림... 소상공인과 매출 격차 확대

공정위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통계' 가맹점 평균 매출 3.7억... 4.3% ↑
소상공인 1억9700만원... 2000만원 ↓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감소하면서 자영업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가맹점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7000만원으로 전년(3억5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억9700만원으로 전년(1억99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맹점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감소하며 매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이 3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1억

9600만원으로 5.7%, 도소매업은 5억 69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공정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업 매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가맹산업의 외형은 성장세다. 2025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9960개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브랜드 수는 1만3725개로 10.9% 늘었다. 가맹점 수 역시 37만9739개로 4.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브랜드 수가 1만 886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2181개, 도소매업 658개 순이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업이 18만3714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2만5401개, 도소매업 7만 624개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외식업 가운데 한식 가맹점이 4만3882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 2만9101개, 치킨 2만8750개 순이었다. 매출 증가율은 피자(8.7%), 한식(8.3%), 커피(8.3%), 치킨(5.2%) 등 대

부분 업종에서 상승했다. 다만 주점 업종은 2.4%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가맹점 수가 12만 5401개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도 1억9600만원으로 5.7% 증가했다. 도소매업 역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5억70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다만, 가맹산업이 확대되면서 일종의 유통마진인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며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2600만원으로 전년(2300만원) 대비 300만원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요 세부 업종별 차액가맹금은 치킨 업종이 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과제빵(3000만원), 커피(2600만원), 피자(2400만원), 한식(2000만원) 업종이 뒤를 이었다.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치킨 업종이 9.5%로 가장 높았고, 커피(7.3%), 제과제빵(4.9%), 피자

(4.6%), 한식(2.6%) 업종 순이었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사전심사없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법' 규정을 구체화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등 가맹희망자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한계점주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필수품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가맹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에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 인도에 'K-콘텐츠·소비재' 소개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 열어 SM엔터 참여... 아티스트 IP 체험 문화 체험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인도 남부 시장 선점과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 현지시간 10일부터 이틀간 첸나이 최대 쇼핑몰인 '익스프레스 애비뉴 몰(Express Avenue Mall)'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 (K-Lifestyle in Chennai)'를 개최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인도 남부 경제 요충지인 첸나이에서 K-콘텐츠와 소비재를 결합한 복합 수출 마케팅에 나섰다.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첸나이 최대 쇼핑몰인 '익스프레스 애비뉴 몰'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K-Lifestyle in Chennai)'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력한 이번 행사는 콘텐츠와 소비재 진출의 시너지를 노린 'K-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주도 첸나이)는 자동차와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한 지역이다. 코트라는 최근 인도 내 K-팝 팬덤이 단순

시청을 넘어 앨범과 굿즈 등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참여해 아티스트 IP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는 이틀간 1000여 명의 현지 소비자가 방문했으며, 인도 주요 OTT 플랫폼 및 대형 영화관 체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도 병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기관들도 인도 남부에서 K-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에 함께 했다. 인도한인회와 한국관광공사는 각각 전통 식문화 체험과 한국 문화 체험존을 운영해 현지인들의 인기를 끌었다. 화성시 서남아 사절단 등 유망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팝업 스토어에서는 28개 브랜드의 K-소비재 및 콘텐츠를 선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새울 3호기 '첫 시동' 성공

본격적인 시험운전 실질적 출발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2일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 3호기(140만kW급)가 이날 '첫 시동'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첫 시동'은 원자로 내에서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전소가 본격적인 시험운전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새울 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이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번 성공은 수년간 진행된 설계와 건설 공정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새울 3호기의 첫 시동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12월 촬영한 새울 3호기(오른쪽), 4호기 전경. /한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 공유

중소 해외 탄소시장 진출 발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 제1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사 홍보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사례, 민관협력 기반 사업 추진방식,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참여

기업이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사는 현재 매립가스 포집과 활용, 바이오가스 자원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식을 기반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해외 확장을 지속 추진 중이다.

공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기획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사의 공신력과 민간의 기술

력을 결합한 협력 방식을 통해, 해외사업 추진 시 협상력 강화와 위험 요인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원순환 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해외 확산을 통해 한국형 녹색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녹색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공, '안전 영농·풍년 기원' 통수식

올해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 본격화

올해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경기 안성 고삼저수지에서 '2026년 대표 통수식'을 개최했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다. 겨울 동안 닫아뒀던 저수지 수문을 열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한 해의 안전 영농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행사가 열린 고삼저수지는 안성시 일대 농경지 2970헥타르(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다. 공사는 고

삼저수지를 포함한 안성 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사의 사전 대비와 시설 개선에 힘입은 결과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뭄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아울러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해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질 개선에도 힘써 왔다.

공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능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송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포항시, 'APEC AI센터' 유치 박차... AI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협력 경험 등 수행 적합 평가
아태이론물리센터 운영 강점도
개발협력형 국제기구로 구체화

포항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
지능(AI) 협력과 정책을 총괄하는 상
설 국제기구인 'APEC AI센터' 유치
에 본격 나섰다.

APEC AI센터는 지난해 APEC 정
상회의를 계기로 AI 협력체계 구축이
공식화되면서 추진되는 국제기구로,
AI 정책·기술 개발 지원과 산업 기반
AX 실증 지원, 국제협력 및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국제협력 경험과 산업·연
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APEC AI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기구 운영 경험 역시 강점
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시는 1996년 APEC 정상회의
를 계기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이론물



지난해 12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AI센터 포항 유치 비전 선포식' 모습.

리센터를 25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해 오며 아시아태평양권 국제기구 거
점 도시로서 역량을 입증해 왔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 19개 회원국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국은
APEC 회원국과 중복돼 향후 협력 기
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
터 평의회에서는 14명의 평의원이
APEC AI센터의 포항 설립 필요성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적 공감대
도 확대되고 있다.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등 산업 기
반 AX 실증 역량을 비롯해 포스텍, 한
동대학교,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글로벌 교육·연구기관을 통한 AI 인재

양성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포항시는 A
PEC AI센터를 AI 후발국 역량 강화
를 지원하는 '포항형 개발협력(ODA)
형 국제기구'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외부 지원과 역량 축적, 자립 기반 형
성, 지속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A
I 개발협력 모델이다.

시는 AI 역량이 부족한 APEC 회원
국을 대상으로 ▲연구자·학생 파견 ▲
현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
질적 지원 사업을 핵심 기능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포스텍, 한동대학교, 아시아태평
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과 협력해 AI 인력 파견 확대와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신규 AIOD
A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
설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t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부산관광공 '숙박세일 페스타 봄편' 참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봄 시즌 국내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해 '2026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봄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
의 하나로 추진된다. 공사는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할인 쿠폰을 매일 오전 10시 선
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총 4종으로, 1박 상품 중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할인쿠폰', 2만원 이
상 7만원 미만 결제 시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연박 전용 쿠폰은 14만원 이상 결
제 시 '7만원 할인쿠폰', 5만원 이상 14만원
미만 결제 시 '5만원 할인쿠폰'이 적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403억 투입해 조선업 AI 전환 (2030년까지)

초거대 산업 AI 연구 지원사업 선정
올해부터 UNIST와 연구개발 착수
조선 기술자 제조지식 AI로 체계화

울산시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
발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
대 산업 인공지능 연구 지원 사업' 공
모에 최종 선정돼 2030년까지 국비
285억원을 포함한 총 403억원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초거대산업 AI는 공정별로 개별 AI
를 개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산
업 전반을 아우르는 파운데이션 모델
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대규모 데이터
로 사전 학습해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울산시는 주관 기관인 울산과학기술
연구원(UNIST)과 함께 올해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
PU) 기반 구축과 조선업 특화 AI 파운
데이션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며 2030년까지 조선업 현장 전반의
수십 개 이상 과업에 대한 인공지능 전
환(AX) 실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조
선 숙련 기술자의 제조 지식을 AI로 체
계화해 지속 가능한 기술 전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일정 단
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울
산형 소버린 인공지능 집적 기반 조성'
사업도 중앙 정부와 연계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일부터 4일간 주
개최지 김해시를 포함한 경남 16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김해시

김해시, 23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경남 16개 시·군서 열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
일부터 4일간 주 개최지 김해시를 포함
한 경남 16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김해에서는 24일 김해종합운동장 개
회식을 시작으로 육상·축구 등 8개 종
목이 진행된다. 2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맞이 위해 김해시는 교육청·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
며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장 안전 점검은 지난 3월 이미
완료했다. 소방·전기 분야 점검과 노

후 시설물 개보수를 마쳤으며 가설 텐
트·컨테이너·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시설물도 경기 시작 전 설치를 마칠 예
정이다. 모든 경기장에는 의료 인력을
배치해 부상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
응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개·폐회식을
대비해 경찰·소방 인력과 자원봉사자
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경기장별 주
차 공간 확보와 순환 셔틀버스도 운영
한다.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
으로는 정기 지도·점검과 친절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주)티씨엠에스 공장 착공

벤처투자 선순환 성과 가시화

경북도는 지난 10일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서 (주)티씨엠에스 공장 기공식
을 열고 벤처기업 성장 기반 확충에 나
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
부지사를 비롯해 경산시, 유관기관, 기
업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 사례는 경북도가 추진 중
인 '발굴-육성-투자' 벤처 지원 구조
가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대
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주)티씨엠에스
는 2020년 3월 설립 이후 현재 30여 명
규모로 성장한 기술 기반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장비를 비롯해
차세대 소재인 폴리이미드 분리막까지
아우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

기업 1000+'에 선정됐으며, 2023년에
는 한국예탁결제원 주관 'K-Camp 데
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G-star 밸리'와 'G-star
펀드'를 연계한 벤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티씨
엠에스는 지역산업협력 R&D펀드 20
억원과 경북행복기업 혁신벤처펀드
10억원 등 총 4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
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240
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도의 벤처 지원 사업 6개를
통해 약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
원받으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투자
가 찾아오는 지역' 조성을 목표로, 유
니콘 기업 5개 이상 육성을 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울주군, 90억 투입해 대운산 여가복지 조성

야영장·경관광장 갖춘 복합 공간

울산 울주군이 온양읍 운화리 1299번
지 일대에 야영장과 경관광장을 갖춘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운산 여가복지 조성사업'의 총사
업비는 89억 9000만원으로, 야영장 26
억원, 경관광장 63억원이 각각 투입된
다. 야영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동해고속도로 온양I

C와 인접해 접근성이 높다.

야영장은 9637㎡ 부지에 24면 규모
로 조성된다. 목재 데크 기반의 테크캠
핑장 15면, 자갈캠핑장 2면, 대운산 전
망을 즐길 수 있는 테크캠핑장 7면
으로 구성된다.

7890㎡ 규모의 경관광장은 3개 테마
공간으로 나뉜다. 놀이마당, 숲속탐방
로·편백나무길·수국원으로 이뤄진 숲
속힐링마당, 운동공간과 광장으로 구
성된 입구광장이 각각 조성된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창원시

'하노버 메세'서 中企 진출 지원

창원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Han
nover Messe) 2026'에 참가해 관내 중소기
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고 밝혔다.

하노버 메세는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미
래 제조 기술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산업 기술 박람회다. 79회차를 맞는 올
해 박람회에는 60개국, 3500개사 이상이 참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영역은 ▲자동화·디지털화 ▲에너
지·산업인프라 ▲연구·기술이전으로 구성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제2기 로컬 100' 최종 선정

경주시는 신라문화제와 양동마을, 국립경
주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
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에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주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
원의 가치와 문화관광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
굴하고 육성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
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체계 개편

김해시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
례'를 '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
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지급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인상된
다. 첫째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
원,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주류업계, 저도·제로·과일주 등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

**하이트진로 과일주 등 라인업 확장
롯데칠성음료 저도주 재포지셔닝
오비맥주 카스 스포츠 마케팅 강화**

국내 주류 시장이 소비 심리 위축과 음주 문화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면서 주요 업체들의 경영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소주와 맥주를 주력으로 하는 전통 주류 기업들이 사업 구조 재정비와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 주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19년 337만6714kl에서 2024년 315만1371kl로 6.7% 감소했다. 희석식 소주는 같은 기간 10.9%, 맥주는 4.6% 줄었다. 희석 문화 축소와 '웰니스' 트렌드 확산, 저도주·무알코올 선호가 맞물리며 전통 주류 소비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이를 반영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4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멜론에이슬 /하이트진로 클라우드 크러시 /롯데칠성음료 카스라이트 /오비맥주

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2% 줄어든 1723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57.1% 급감한 411억원에 그쳤다. 소주 매출은 1조5221억원으로 1.7% 줄었고, 맥주 매출은 7581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30년 넘게 주류 한 우물을 판 장인섭 대표 체제로 전환해 저도주, 과일주, 무알코

올 맥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대표 소주 진로의 도수를 낮추고, 다양한 맛의 과일주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한정판 '두루퐁향에이슬' '멜론에이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무알코올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고 선포했다. 맥주 대체제 성격으로 형성돼 온 기존 무알코올 음료 시장의 새 출발이다. 소비 상황과 취향에 맞춰 브랜드 별 역할을 분화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시장 외연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매출 4조원 고지를 1년 만에 내렸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조9711억원으로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6% 줄어든 1672억원을 기록했다. 음료 부문 영업이익이 29% 급감하며 수익성이 악화됐고, 주류 부문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5%, 18.8% 감소했다.

신제품 '크러시'가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새로'의 선전에도 주류 사업 전반의 침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롯데칠성은 희망퇴직, 조직 통폐합, 공장·물류 리밸런싱 등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크러시'를 '클라우드 크러시'로 통합해 라이트 맥주로 재포지셔닝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로 음료와 제로 소주 등 히트 제품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 박윤기 대표가 이번에는 체질 개선과 글로벌 전략을 통해 실적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맥주 1위 업체인 오비맥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매출은 1조7785억원으로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4% 감소했고 순이익은 33.9% 줄었다. 매출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셈이다. 오비맥주는 '카스'를 중심으로 논알코올, 라이트 맥주 확대와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류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희석과 모임 중심의 대량 소비 구조에서 개인 취향, 건강, 저도주·무알코올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소주·맥주 판매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 변화를 인정하고 속도감 있게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제품 구성을 넓히고, 성장 역력이 남아 있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전략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백, 롯데디자인즈 공식 굿즈샵 오픈

**스포츠 컬처 브랜드 '월비플레이' 협업
계절 시즌상품·유명 IP 한정판 등 판매**

롯데백화점이 '롯데디자인즈'의 공식 굿즈샵을 잠실 롯데월드몰에 선보인다.

롯데디자인즈는 1982년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부산을 연고로 창단한 국내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대 스포츠 성지인 '롯데타운 잠실'에 야구팬들을 위한 '롯데디자인즈' 공식 굿즈샵을 연다. 잠실점 상권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야구장 등도 위치해 다양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과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입지의 배경이 됐다.

11일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 선보이는 '롯데디자인즈'의 공식 굿즈샵인 '롯데디자인즈x월비플레이'는 패션 그룹 형지의 스포츠 컬처 브랜드인 '월비플레이'와의 협업으로 롯데디자인즈 공인 굿즈를 비롯해 야구 용품까지 총망라한 '호텔 야구 굿즈샵'이다. 롯데디자인즈의 '유니폼' 등 의류와 함께 월비플레이의 배트백, 양말, 모자 등 '야구 용품'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 오픈한 '롯데디자인즈x월비플레이'에 선보이는 디자인즈 유니폼 및 굿즈

'액세서리'까지 야구 관련 풀 라인업의 상품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즈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 야구장에 위치한 '디자인즈 샵 (GIANTS SHOP)'의 운영 방식도 주목한다.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에 따라 차별화한 시즌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유명 IP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도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즈샵에서 팬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마킹 스테이션'도 선보인

다. 마킹 스테이션에서는 구입한 유니폼에 원하는 선수의 이름과 배번을 즉시 새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디자인즈 매장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고객 혜택도 마련했다. 11일, 12일 이틀간 당일 선착순 200명에게 인기 응원 도구인 롯데디자인즈 짝짜이를 증정하고,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선글라스, 야구 저지, 사인볼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연다.

/신원선 기자

투썸플레이스, 3년 연속 최대실적 행진

지난해 매출 5824억, 영업이익 363억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실적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작년 매출 5824억원, 영업이익 363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12%, 11% 늘었다.

소비자 매출은 내부 집계 기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조 874억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SSSG)은 7%를 기록했고, 신제품 매출과 디지털 매출도 각각 22%, 33% 증가했다. 지난해 117개 매장을 새로 열며 연말 기준 전국 매장 수는 1729개로 늘었다.

성과의 배경에는 디저트 중심 제품 전략이 있다. 시그니처 케이크 '스초생'을 앞세운 과일생크림 케이크 라인업과 말차 제품군 등 디저트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커피·음료 매출까지 동반 성장으로 이끌었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 중심 마케팅도 소비자 주목도를 높였다.

2023년 하반기 문영주 대표 합류 이후 본격화된 디저트 특화 전략과 R&D 강화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히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원두와 식자재 가격, 환율 상승 등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화와 비용 관리로 수익성을 방어했다. 가맹점 지원도 강화했다. 가맹점 납품대금 카드 결제 도입, 정기 가맹점주협의회 운영, 신제품 프로모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해 소통 체계를 개선했다. 3년 연속 광고·마케팅 비용을 분사가 전액 부담한 결과, 지난해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문영주 대표는 "고객 만족과 가맹점 상생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며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미국 1호점 오픈과 함께 뉴욕 기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Van Leeuwen의 국내 1호점을 선보이며 디저트 카테고리 확장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다이닝브랜드그룹, 매출 6000억 돌파

'과삭킹' 등 신메뉴 판매 호조

다이닝브랜드그룹은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전년(5127억원) 대비 19.9% 증가한 6147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매출 성장은 '과삭킹', '스윗칠리킹' 등 신메뉴 판매 호조가 견인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출시한 '과삭킹'은 약 1년 만에 누적 판매 700만 개를 기록하며 '뿌링클'과 함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

처 메뉴로 자리매김했고, 하반기 선보인 '스윗칠리킹' 역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100만 개를 판매를 돌파했다.

신메뉴 판매 호조는 가맹점 실적에도 반영됐다. 2025년 다이닝브랜드그룹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선육·부분육 등 주요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분사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유지하며 가맹점 매출 성장의 기반을 뒷받침했다.

2025년 매출총이익률은 37.0%로 전년(38.8%) 대비 1.8%p 감소했다. 해바라기유, 신선육, 부분육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공급가 인상을 최소화하며 원가 상승 부담의 상당 부분을 분사가 흡수한 데 따른 결과다. 영업이익은 164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26.1%) 대비 0.68%p 소폭 상승했다. 물류센터 및 생산시설 기반의 내재화된 공급 구조와 통합 구매 체계를 통한 원가 관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월드 딤 '천지유광' 전시

롯데월드의 몰입형 공간인 '이머시브 플랫폼 (IMMERSIVE PLATFORMD EEP, 이하 '딤')이 5월 3일까지 글로벌 애니메이션 '천관사복'의 국내 최초 애니메이션 원화 전시회인 '천지유광'을 선보인다.

'딤'은 지난해 10월 오픈한 IP 전용관으로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이다. '딤'의 세 번째 전시인 '천지유광'은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로 개최된 웹소설 원작의 애니메이션 '천관사복'의 오리지널

전시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딤'에 구현된다. '천관사복'은 인간 세계에서 귀신을 제거하며 공덕을 쌓아야 하는 신관 '사련'이 우연히 붉은 옷의 신비로운 소년을 만나 함께하는 여정을 그린 웹소설 원작의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약 450평 규모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 '천지유광'은 오리지널 전시의 테마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직 '딤'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영상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애니메이션의 세부 설정과 원화를 공개하는 한편,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주요 공간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구현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신약부터 에스테틱까지... 대웅그룹, 사업 다각화 박차

‘펙수클루’ 임상3상 시험계획 추진
‘나보타’, 미국 등 해외 시장 확대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CaHA’ 선봬

대웅그룹이 주력 제품군의 약진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산 신약 ‘펙수클루’ 적응증 확대와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의 수출 신장세가 두드러진다.

1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웅그룹 핵심 사업회사 대웅제약은 국산 신약 ‘펙수클루’ 후속 연구개발로, 처방약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펙수클루정 40mg 적응증에 ‘위궤양 치료’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 3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이번 임상은 약 21개월간 성인 위궤양 환자 총 384명에서 펙수클루 유효성,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8주 시점까지 위궤양 누적 치료율을 확인해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상 완료 후 품목허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 40mg /대웅제약

변경 승인을 거쳐 적응증 확대 발매에 나설 계획이다.

펙수클루는 칼륨결정성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만성 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궤양 예방 등 적응증을 지속 확보해 왔다. 신규 적응증과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화기 질환 시장에서 펙수클루의 지배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펙수클루의 2025년 연간 매출은 982

억원으로, 특히 10mg, 20mg 등 저용량 제품이 브랜드 성장을 견인했다. 펙수클루 20mg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소염진통제 복용 환자의 궤양 예방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또 대웅제약 전체 매출에서 펙수클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다. 해당 비중은 앞서 2024년 약 8%, 2023년 약 5%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는 수출 중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나보타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나보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2024년 15%, 2023년 12% 등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수출 규모 역시 2023년 79%,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84% 등으로 커졌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멕시코 진출을 완료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상위 5대 미용성형 시장 모두에 진입했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후 지난해 미국 미용독소 시장 내 점유율 14%를 달성했다.

대웅그룹은 보툴리눔 독소에 이어 차세대 에스테틱 시장에서도 수의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대웅그룹 지주회사 대웅의 특수관계사 시지바이오는 에스테틱 필러 ‘디클래시 CaHA’를 선보이고 있다. 디클래시 CaHA는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CaHA(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주성분으로 처방해 피부 탄력, 볼륨 등의 개선을 돕는다.

시지바이오는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 기업으로 뼈 및 척추 골대체재, 내과와 상처 치료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배우 임수정을 디클래시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디클래시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아울러 대웅그룹은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시지바이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수관계사인 디엔코스메틱스에서는 더마 뷰티 브랜드 ‘이지듀’를 구축했다. 대웅이 개발한 인체 상피세포 성장인자(EGF)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고순도·고활성 성분인 DW-EGF를 처방한 화장품을 내놓는다. 피부 재생 효과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에 소재 경쟁력과 기술력을 집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이지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급증해 1000억원을 넘겼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HLB이노베이션, 베리스모에 414억 투자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참여
CAR-T 치료제 임상 추진

HLB이노베이션이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에 2800만 달러(약 414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실시하는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HLB이노베이션은 올해 베리스모 신주 528만3018주를 추가 확보해 베리스모 지분 98.93%를 보유하게 된다. 또 베리스모는 모회사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CAR-T 치료제를 개

발하는 임상을 추진한다.

베리스모는 독자 구축한 CAR-T 플랫폼 ‘KIR-CAR’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고형암과 혈액암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등 차세대 CAR-T 치료제의 임상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암학회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고형암 CAR-T ‘SynKIR-110’의 임상1상 중간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학회 내 최고 권위로 꼽히는 임상시험 플래너리(CTPL) 세션의 구두 발표로 선정돼 임상적 의미와 기술적 경쟁력을 공

식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투자는 상장 모회사가 자금 투자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속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향후 연구개발 성과가 모회사의 기업가치로 이어지는 그룹 성장 전략의 연장선이다.

HLB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베리스모의 CAR-T 임상 성과는 HLB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로 반영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상에서 성과를 거둬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HLB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에뛰드, 봄 감성 담은 ‘딸기 컬렉션’

아이 팔레트·마스카라 등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에뛰드 ‘딸기가 추구미’ 컬렉션을 단독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뛰드는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로, 이번에는 딸기 과즙의 싱그러움 색감을 구현한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한 손에 들어오는 2단 아이 팔레트 ‘뽀뽀 아이 메이커’에는 여름 쿨톤을 위한 화사한 색감을 조합해 담았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스키니 마스카라’에도 딸기빛을 더해 신비로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입술용 제품인 ‘픽싱 틴트’에서도 제품군을 확장했다. 딸기를 베어 문 듯 생기 있는 입술을 표현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농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세



에뛰드 ‘딸기가 추구미’ /아모레퍼시픽

품은 ‘딸기한입’, ‘딸기두입’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에뛰드 관계자는 “화사한 봄을 맞아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왕관부터 미니 캐리어까지... 유시몰 ‘바비 에디션’ 공개

처음으로 여행용 세트 선봬

LG생활건강은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에서 글로벌 아이콘 바비와 협업한 ‘유시몰’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유시몰은 구강 뷰티 브랜드로, 이번 기획은 다양한 굿즈를 포함한 치약 2종, 칫솔 2종, 미백제 1종, 여행용 세트 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굿즈는 화이트닝 치약 세트에 포함된 ‘로열 크라운 스쿠저’다. 이 스쿠저는 유시몰만의 영국 고전 감성을 담은 핑크빛 왕관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감을 갖췄다.

유시몰에서 처음 내놓는 여행용 제품인 ‘퍼플코렉터 치약 여행용 세트’는 언제 어디서나 유시몰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미니 캐리어 형태의 키트



‘유시몰X바비’ /LG생활건강

로 만들었다. 동봉된 DIY 스티커로 취향에 따라 캐리어 꾸미기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퍼플코렉터 치약과 퍼플 파우치, 미백제와 글로우 미러, 칫솔과 리유저를 컵 등을 마련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강렬한 상쾌

함과 확실한 효능으로 밝은 미소와 활기를 불어넣는 유시몰 제품력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특징적인 바비의 이미지를 합쳐 ‘모든 순간 나답게’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올리브영, 자체 포인트로 멤버십 혜택 확대

올리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가능

CJ올리브영이 오는 5월 올리브영 회원 ‘올리브 멤버스’를 대상으로 자체 포인트 제도 ‘올리브 포인트’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리브영을 즐겨 찾는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라인 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CJ ONE 포인트에 더해 추가로 적립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열리는 행사나 서비스 참여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리브영은 그간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올리브 멤버스’ 혜택을 지속강

화해 왔다. 등급별 쿠폰 등 할인 수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올리브영만의 체험형 콘텐츠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위 등급인 골드·블랙 올리브는 매달 뷰티·웰니스 브랜드와 연계한 체험형 강의 ‘올리브 클래스’에 참여 가능하다. 최근에는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리와 협업한 쿠킹 클래스,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과 제휴한 온·오프라인 강의 등이 열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뷰티·웰니스 경험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올리브 멤버스’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소갈비살 패티로 쫄깃한 고기 식감 UP!

불갈비버거

단품 6,800원 세트 8,800원

DT매장
전용 패키지!



영양성분표

버거메뉴	총중량(g)	열량(kcal)	단백질(g)	나트륨(mg)	당류(g)	포화지방(g)
불갈비버거	182	467	19(35%)	870(44%)	13	10.0(67%)

세트메뉴 : 선택 디저트, 음료에 따라 영양성분 상이

버거세트메뉴	열량(kcal)
불갈비버거 세트	579 kcal ~ 1,264 kcal

알레르기 유발 안내

불갈비버거	달걀, 밀, 대두, 우유, 쇠고기
-------	--------------------

원산지

쇠고기(호주산)

LOTTERIA™

메뉴 구성에 따라 알레르기 성분이 다르므로, 각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 바랍니다. 각 제품은 원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 성분 및 원산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락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 기준이며, 당사 표준 레시피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으로 실제 제공된 제품의 영양성분과 중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양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은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무원, 파주 '평화의 숲' 가꾸기 활동

풀무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일대 '풀무원 평화의 숲'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임직원들과 함께 숲 가꾸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풀무원 평화의 숲'은 풀무원이 2021년 (사)평화의숲과 함께 조성한 2400여 평 규모의 숲으로 파주 접경지역의 생태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풀무원



HK이노엔, 히말라야 사트피크 원정대 발대식

HK이노엔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대한산악연맹과 '2026 대한산악연맹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 대한산악연맹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는 대한산악연맹 주창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29일간 히말라야 미담봉 '사트 피크(해발 6220m)' 초등에 나선다. /HK이노엔



현대건설, 핀란드 대표단과 차세대 에너지 협력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건설



NH농협생명, 제38회 농축협 연도대상 개최

NH농협생명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38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대상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함께 성장하고 협력한다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가치를 담아 진행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노력이 하나로 모여 이룬 성과를 기념하고, 농축협과 NH농협생명이 함께 만들어진 조화의 숲을 콘셉트로 행사가 마련됐다. /NH농협생명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별세

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으로 활동해 온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9일 오후 1시49분께 별세했다. 향년 67세. 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신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1986년 중앙일보로 옮긴 뒤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다. 1998년에 이어 2006~2016년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며 기명 칼럼 '김진의 시사각각'을 통해 보수진영의 대표 칼럼니스트로 자리잡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역대급 무더위 온다'... 삼성,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광주사업장 2월부터 생산 총력 AI 무풍 신제품 앞세워 수요 대응 빅스비·굿슬립 등 AI 기능 강화 이달 한달 구매고객 할인·캐시백

삼성전자가 역대급 무더위 예보와 2026년형 신제품 인기에 힘입어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위치한 에어컨 생산라인을 지난 2월부터 풀가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한 달간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무더위에 대비했다.

스탠드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등 신제품도 내놨다.

2026년형 에어컨 신제품은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2종이다.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더위로 급증하는 에어컨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했다. /삼성전자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된 'AI-모션 바람'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와 공간 구조를 반영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교하게 제어한다.

'AI-모션바람'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냉기를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바람 2종과 ▲순환 ▲원거리 ▲무풍 ▲맥스(Max)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으로 구성됐다.

벽걸이형 신제품은 이에 더해 '상하' 바람까지 총 7가지 바람을 제공해 실내를 빠르고 고르게 냉방한다.

이외에도 ▲실내외 환경과 공기질,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냉방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I 쾌적' 모드 ▲공간의 습도까지 쾌적하게 관리하는 '쾌적제습'을 갖춰 실내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스

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는 슬림한 바디와 폴 메탈 패널, 패브릭 패턴의 측면 디자인으로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는 심플한 그리드 디자인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지원해 자연스러운 대화로 손쉽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갤럭시 위치와 연동한 '웨어러블 굿슬립' 기능으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맞춘 맞춤형 냉방도 제공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4월 한 달간 무풍에어컨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부터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창문형 에어컨' 등 삼성 에어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캐시백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노비즈협회, 청년채용 지원기업 찾는다 세븐일레븐, 소상공인 동행축제 참여

기업에 年 최대 720만원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해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경남 등 전국 8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총 4602명 규모의 배정인원을 운영한다. 기관별 배정규모

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요건 충족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월 임금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메뉴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주관 소비촉진 캠페인 동참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26 동행축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유통사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소비캠페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로컬에서 즐기는 모두의 동행축제" 테마로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편의점 업계에선 세븐일레븐이 유일 참여한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대상 품목은 11찬도시락, 양반떡갈비&제육도시락, 반반제육&쏘야도시락, 고만할필요없는도시락 등 인기 도시락 4종이다. 모두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세븐일레븐에서 동행축제 대상 품목을 소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의 중소 파트너사 제조 상품이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패키지에 동행축제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해당 도시락 구매 고객은 스티커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구매영수증 인증을 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세븐일레븐은 추첨을 통해 총 340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선양소주, 7년 만에 계족산 맨발축제 재개

내달 계족산 황토길서 이틀간 개최

충청권 대표 향토기업 선양소주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제15회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 재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설 공연 '뽀뽀한 클래식 숲속 음악회'의 2026년 시즌이 개막됐다.

2006년 첫걸음을 땀 이후 매년 수만 명의 발길을 이끈 지역 대표 축제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는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계족산 황토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와 장동산림욕장 재정비로 휴식기를 가진 뒤 7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붉은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달리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둘째 날인 5월 10일에는 세계



선양소주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제15회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를 재개최한다. /선양소주

유일의 맨발 달리기 대회인 '선양 마사이 마라톤'이 열린다. 아프리카 초원을 맨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마사이족의 걸음에서 착안해 이름 붙여진 대회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붉은 황토길을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색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발끝으로 자연의 감각을 느끼며 달리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색다른 성취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유진그룹, 전사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

차량 5부제 시행 등 '4대 영역' 중심

유진그룹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12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유진한일합섬, 유진호텔, TXR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급변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그룹 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계열사와 사업장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과제'를 발굴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무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캠페인의 핵심 방향은 ▲차량 운행 관리 ▲사무공간 전력 절감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기타 운영 비용 절감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차량 5부제 시행과 점심시간 소등, 미사용 PC 절전 모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름철 냉방 26°C 이상, 겨울철 난방 20°C 이하 유지 등 적정 실내 온도 준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연계한 절감 방안도 병행한다. 전자문서 사용 및 화상회의를 확대해 종이와 이동 비용을 줄이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전화번호 전달만 해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



**김대혁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최근 어떤 사람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사회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대수롭게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막연하게는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법령상의 명확한 정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서 말하는 성명 등의 정보는 법령상 명확히 개인정보가 되고, 나머지 정보는 결합식별가능성을 통해 개인정

보가 될 수 있다. 통상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쉽게 식별가능한 정보라 여겨져 개인정보성이 인정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광범위한 제재를 받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된다. 개인정보성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앞서 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성은 공통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업무성이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위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친구 사이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전화번호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누구에게 왜 전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법무법인 바른

티웨이항공, 사명 변경 이후 남은 사업의 과제



**이지수첩
유혜온
(산업부)**

티웨이항공이 사명 변경을 추진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한때 주당 4000원대를 웃돌던 주가는 최근 800원대까지 내려왔고, 유상증자와 감자를 동반한 자본 재편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항공업계에서는 중동발 위기가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환율에 따른 리스료·정비비 상승에 더해 유가 상승분까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비용 압박이 커지는 구조다.

티웨이항공의 재무 부담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348.3%로

주요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용 증가 구간에서 재무 체력 약화는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문제의 근원에는 노선 전략이 있다. 장거리 노선은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이 선행되는 구조다. 서비스와 기재 운영, 조직 체계 전반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수준의 경험과 수요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노선에 진입하면서 비용 부담이 먼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선택도 아쉬운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장거리 노선 가운데 미주 시장이 유럽보다 수익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교민과 비즈니스 수요가 꾸준히 계절성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유럽 노선은 성수기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쟁 환경 역시 달라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운임 체계가 재편되

면서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LCC와 대형 항공사 간 가격 격차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일정 구간에서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서비스 경쟁력이 수요를 좌우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티웨이항공이 내놓은 시너지 전략은 소비자를 설득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호텔과의 결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은 뚜렷하지 않다. 장거리 여행 수요를 겨냥한다면 현지 체류와 연계된 서비스가 더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된 자본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 개선 경로를 제시하는 일이다. 지금 티웨이항공에 필요한 것은 새 이름을 알리는 일 아니라 숫자로 설명되는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다. 시장은 이미 그 숫자로 티웨이를 평가하고 있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3일 (음 2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취** 48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60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입니다. 72년생 괜한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84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 소** 49년생 대만 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61년생 내 자신을 추스리세요. 73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5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 토끼** 51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 용** 52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4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되도록이면 타협하세요. 76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8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었습니다.
- 뱀**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 말** 54년생 비노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못한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 양** 55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6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79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91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 닭**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니 때를 기다리세요.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되도록이면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 개**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 돼지** 59년생 주위와 협동하세요. 71년생 무작정 벌인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법. 83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95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위험한 포모 증후군

작년부터 한국 증시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치솟았다. 증시가 뜨거워지면서 한쪽에서는 비명이 터졌다.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비명이나 주식투자를 하는 주변 사람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지만 했기 때문이다.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감정에 휩싸였다.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다. 포모를 견디다 못한 일부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증시에 뛰어들었다. 시장은 냉혹했다. 이란 전쟁이라는 예상 못 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증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뒤늦게 뛰어들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며 이후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이 다시 급상승을 시작하면 또다시 포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재물이 과다하거나 불안정한 사주가 포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재성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재물에 대해 심한 집착을 보인다. 집착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비겁이 강해서 경쟁심이 지나치거나, 편인이 작용해서 생각에 갇힌 사람 역시 포모에 시달릴 수 있다. 옆 사람이 수익을 냈다는 말에 감정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투자에서 포모는 위험하다. 증권사 객장을 찾아 급하게 계좌를 만든 사람이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공포가 눈을 가리게 만든 것이다. 투자에는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남들이 모두 돈을 벌어도 나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게 투자다. 증시는 결코 공짜로 수익을 주지 않는다. 위험을 감당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증시가 올라서 마음이 조급할 때는 뒤로 물러나는 통제를 보일 때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4				
			4	8	5			
8	4							3
5			4				8	2
7	4		7	9				6
3						2		4
		7	8		5			
		2	6					1

1	6	7	2					5
			4					1
	4			1				7
		9				5	8	
	2	3		8	6			
	7	8				1		
6			4				7	
9				3				
4				9	7	3		6

1	2	8	7	9	8	2	9	6
6	9	8	9	2	8	2	1	7
7	9	2	1	2	6	9	8	8
9	6	2	8	9	1	7	2	2
9	7	1	6	8	2	8	2	9
2	8	2	9	7	1	6	8	9
8	1	9	2	9	2	7	6	8
2	2	9	8	6	7	8	9	1
8	6	7	8	1	9	9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과 수학·과탐 급감... 2027 수능 선택 지형 '대변화'

종로학원, 3월 학력평가 분석 확률과통계·사회탐구 증가세 합격선·수능최저 예측 '난항'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응시 현황>

/종로학원

과목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전년대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증감률
미적분	115,765	33.6%	117,397	39.1%	133,116	43.4%	139,784	43.8%	134,133	38.4%	97,822	29.4%	-36,311	-27.1%
기하	20,027	5.8%	12,403	4.1%	8,131	2.7%	7,334	2.3%	7,118	2.0%	7,056	2.1%	-62	-0.9%
소계	135,792	39.5%	129,800	43.2%	141,247	46.1%	147,118	46.1%	141,251	40.5%	104,878	31.6%	-36,373	-25.8%
확률과 통계	208,260	60.5%	170,622	56.8%	165,146	53.9%	171,761	53.9%	207,722	59.5%	227,444	68.4%	19,722	9.5%

2027학년도 3월 학력평가에서 이과 수학과 과탐 응시 비중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선택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합격선 및 수능최저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종로학원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달 24일 시행된 2027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응시자 33만4663명) 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적분·기하 등 이과 수학 응시 인원은 10만4878명으로 전년 14만1251명보다 3만6373명, 25.8% 감소했다.

미적분은 13만4133명에서 9만7822명으로 27.1% 줄었고 기하는 7118명에서 7056명으로 0.9% 감소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20만7722명에서 22만7444

명으로 9.5% 증가하며 수험생 풀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자연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과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 반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중심으로 선택되는 과목이다. 최근 자연계 학과에서도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면서, 문·이과 경계가 완화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율로 보면 변화는 더 크다. 미적분·기하 응시 비중은 전체 수학 응시자의 31.6%로 2022학년도(39.5%)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 비중은 68.4%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탐과 과탐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과탐 1과목 4개 합산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으로 전년 24만6557명 대비 8만6691명, 35.2%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생명과학I 37.6% ▲지구과학I 33.5% ▲물리학I 33.8% ▲화학I 34.2% 각각 감소했다. 특히 화학I은 2022학년도 6만4431명에서 2027학년도

1만8508명까지 줄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사회탐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사탐 9개 과목 합산 응시 인원은 50만3401명으로 전년보다 5만3933명, 12.0% 늘었고, 탐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5.9%로 통합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학과 탐구 선택 과목 간 응시 인원이 크게 재편되면서 입시 예측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학은 선택과목별 점수 산출 구조상 단순한 유

불리 판단이 쉽지 않고, 탐구는 응시 인원 변화가 등급 인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과탐 선택 수험생의 수능최저 충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현행 통합수능 마지막 해로 ▲N수생 유입 확대 ▲자연계 학과의 확률과 통계·사탐 허용 확대 ▲무전공 선발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문·이과 경계가 더욱 흐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과목 선택과 지원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학과 탐구에서 응시 인원 변화가 매우 큰 상황에서 통계적 우월리만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본인의 적성, 학습 부담, 준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1·2 맞춤형 상담으로 진로 설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 3단계 통합 지원 추진 사교육 의존 줄이고 정보 격차 해소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1·2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료 보급부터 교사 역량 강화, 학생·학부모 대상 1대 1 맞춤 상담까지 이어지는 '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해당 종합계획을 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상시형 진로·진학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방침을 학교 현장에 구체화하는 후속 사업이다.

우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 자료집' 2종을 개발

해 보급한다. 자료집은 오는 30일 이후 서울 관내 일반고에 배포되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교사 대상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를 4월 30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다. 설명회에서는 진로 탐색부터 학업 설계, 진학 지도까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

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석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강의 영상은 촬영 후 5월 11일 이후 서울교육 웹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마련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1·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300명 규모의 '집중 진학상담 주간'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은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이 학생별 과목 선택과 진로·진학 설계를 40분간 1대1로 지원한다.

상담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공통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되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천원택시 230개 노선으로 확대

주민 이동 패턴 반영... 접근성 높여

파주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확대한다. 노선과 운행 마을을 늘려 이동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시는 2019년 시범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천원택시 사업을 2026년에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이 어렵거나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주민이 1000원으로 주요 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운행 범위를 넓혔다. 군내면 조산리와 송촌동, 하지석동 등 3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대상 마을은 기존 63곳에서 66곳으로 늘었다. 노선도 확대됐다. 주민 요청이 많았던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포함해 총 230개 노선이 운영된다.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하

여, 단순 노선 증가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이동 패턴을 반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가 자주 찾는 거점을 중심으로 동선을 재구성했다.

운행 지역도 조정됐다. 기존 읍면 지역 중심에서 교하동 일부 마을까지 포함해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지만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운영 방식도 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조례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 중 교통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천시, 2.5조 들여 서북부 교통망 대개편

강화·옹진 지역 교통망 확충

인천광역시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혀온 서북부 검단과 강화·옹진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도로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 권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역 이동 편의성을 높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며,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먼저 검단 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총연장은 40.73km이며, 사업비는 약 1조6137억 원 규모다.

강화·옹진 지역에서도 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된다. 서해 남부 평화도로와 국지도 84호선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개통 시 강화 지역 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의 총연장은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 원이다.

또한 옹진 지역에서는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 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 68호선이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이 낮았던 강화·옹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해돋이 / 06:01 | 해질 / 19:05

오늘의 날씨

4월 13일 (월)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9 ~ 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이출 지수

연천 7/26

동두천 9/26

가평 6/26

파주 7/26

서울 9/26

양평 8/26

용인 9/25

수원 9/25

인천 8/23

백령도 7/12

평택 7/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미 “핵추구 않겠다 명시적 약속 필요”

▲트럼프, 협상결렬 후 침묵중...SNS에 ‘이란 해 상봉쇄’ 기사 올려

/사진 뉴시스

▲호르무즈 경색 장기화 전망...이란 쾌속정·기뢰 여전히 건재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환영식...“지구서 산다는건 특별한일”

▲中, ‘국공 회담’ 후속 양안 교류조치 발표...라이 대만 총통 압박

▲젤렌스키, 이스탄불서 에르도안과 회담...“안보·에너지 논의”



주류업계
저도주·제로 등
포트폴리오 전환
L1



Life

대웅그룹
신약, 에스테틱
사업 다각화
L2



일 중독은 찬양, 실업급여는 비난... 중독 재단하는 사회 꼬집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일상 문화 칼럼니스트

도우리 작가

오늘날 '청년'이라는 단어는 종종 극단적인 두 시선 사이에 갇힌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려한 소비 주체이거나, 혹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무기력한 대상이거나.

일상 문화 칼럼니스트 도우리 작가는 그 이분법적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동시대의 얼굴을 그려낸다.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최근 작가노조의 출범까지 함께한 그를 만나, 그가 말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중독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의 저자 도우리 작가를 만났다.

도우리 작가는 자신을 "미련하게 글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는 글 이외의 삶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8년 차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인 그에게도 '작가'라는 이름표는 얼마 전까지 무겁고 낯선 것이었다. 등단, 공모전 당선, 출간 등 사회적 승인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는 늘 부족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의 생각을 어떤 장르의 역사가 쌓아온 문법과 제도를 의식하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완결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충분히 작가라고요. 독자를 향해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나 작가라고 정의하게 됐을 때야말로 스스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니다."

대학교 시절, 일상을 낯설게 하는 통찰을 담은 '칼럼'이라는 장르에 매료됐던 그는 언론사 입사 준비를 거쳐 우연히 작가 공모전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글쓰기의 길로 들어섰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각을 써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기분이었다는 그는, 그렇게 글쓰기를 중심에 둔 삶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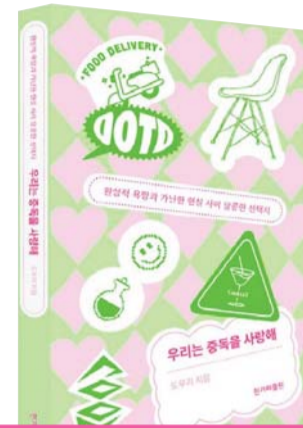
◆중독,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병으로 규정하는 시대

그의 저서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는 '한겨레21' 르포작가 공모전 당선을 계기로 시작했다. 그는 왜 하필 '중독'에 주목했을까. 도 작가는 청년 문화를 해석하는 기존 시선이 지나치게 고상하거나 수직성 위주였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시간과 감정을 쏟는 문화 중에는 돈이 안 되거나 '낭비'되는 것, 혹은 저급하다고 치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담을 키워드가 '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독은 마냥 없애고 싶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의 저자 도우리 작가.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도우리 저자 / 한겨레출판사



8년차 칼럼니스트, '중독'에 주목해 르포작가 공모전 당선 계기로 시작 사회적 문제 따라 중독 프레임 사용

정상성의 기준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 기준 미달하면 도태 낙인 찍히는 청년 정상 벗어난 삶 배제하는 사회 '문제'

최근 작가노조 정식 출범에 힘 보태 사회에 대항할 언어 만들고 싶어

랑'의 결과이기도 하나지요."

그는 중독을 "자해이자 자기위로"라고 정의한다.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꿰뚫어 본 것이다. 담뱃갑의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만으로 금연이 해결되지 않듯, 개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중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이나 병으로 규정짓는 시대입니다. 일 중독은 삶을 돌보지 못해도 장려되지만, 실업급여는 '중독' 프레임이 씌워져 공격받죠. 고용 불안정이나 노동의 질 저하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엉망'인 삶과 청년의 손해감

도우리 작가는 지금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성실하게 엉망인 삶'이라고 표현한다. 정상성(Normal)의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곧바로 '도태'라는 낙인이 찍힌다. 청년들은 나오지 않기 위해 주식, 재테크, 자기계발에 매진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깊은 피로감이다.

"청년들의 삶이 엉망인 건 그들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삶을 배제하는 사회가 엉망인 거죠. 이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은 '손해감'입니다. 모든 것을 손익으로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정서가 불안과 분노로 번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모든 관계와 현상에서 엑셀처럼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하게 됐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의 글은 칼럼의 냉철함과 에세이의

사적인 고백,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생생한 문체를 넘나든다. '배민맛', '안원 씹', '랜선 사수' 등 지극히 현대적인 현상들을 다루기 위해 그는 전통적인 비평의 문법을 과감히 비튼다. 이는 현장의 생생함을 살리고 독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고립된 작가에서 연결된 노동자로

도우리 작가는 최근 '작가노조'의 정식 출범에 힘을 보탰다. 프리랜서 작가가 각자도생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프리랜서 작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작가 생활과 사회가 작품을 향유할 권리를 개인의 성공이나 매력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노조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큰 전환점입니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답변을 내놓았다.

"취약함을 실제로 해석하는 사회에 대항할 언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마다 품은 이상함을 간절히 증폭하는 글들을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탓하며 숨어버린 이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건네는 연대의 약속과도 같다. 도우리 작가가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언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상함'을 깨우게 될지 기대되는 이유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955일 만의 등판 키움 안우진, 10이닝 1탈삼진 무실점
▲'슈퍼 루키' 김민솔, KLPGA 투어 iM금융오픈 우승...통산 3승째 /사진 뉴스시스

▲'호날두 통산 968골' 알나스르, 구단 역대 최다 '14연승 행진'
▲MLB 이정후, 이틀 연속 멀티 히트...시즌 타율 0.200

▲한국 여자 축구, FIFA 시리즈 1차전서 브라질에 1-5 완패
▲손흥민 LAFC서 첫 결장...팀은 포틀랜드에 시즌 첫 패